

# 연말정산 작년 1인당 64만원 환급

### 2021년 카드 사용액 5% 넘게 늘었으면 추가 혜택 기부금 세액공제를 5%p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지난해(2020년 귀속분) 1인당 평균 64만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가 한시적으로 확대된 영향으로 환급액이 전년보다 늘어났다.

올해(2021년 귀속분)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5% 넘게 늘어나면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기존보다 높아진다.

10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에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45만5,055명에게 8조5,515억7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1인당 평

균 63만6,000원 꼴이다.

연말정산 환급액 1인당 평균 액수는 2017년 귀속분 54만8,000원, 2018년 귀속분 57만9,000원, 2019년 귀속분 60만1,000원으로 꾸준히 늘었고 지난해 지급된 2020년 귀속분은 63만원을 넘을 정도로 늘었다.

매년 전체 근로소득이 늘어 원천징수분도 증가하면서 연말정산 환급액은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에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한도를 3~7월 한시적으로 확대한 영향으로 환급액이 예년보다 더 많이 늘었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적용되는 소득공제율은 기존대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300만원까지, 7,000만~1억2,000만원 근로자에게는 250만원까지, 1억2,000만원 초과 근로자에게는 200만원까지 적용된다.

다만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2021년에 신용카드를 2020년보다 5% 넘게 더 사용한 경우 추가 소득공제 10%와 추가 한도 100만원 혜택이 있다.

가령 총급여 7,000만원인 사람이 신용카드를 2020년 2,000만원을 쓰고 2021년 3,500만원을 썼을 경우 원래대로라면 총급여 25%(1,750만원)를 초과해 사용

한 1,750만원에 15% 공제율을 적용한 26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그러나 2021년 신용카드 사용액(3,500만원)이 2020년 사용액의 5%를 초과한 금액(2,100만원)보다 높아졌기에, 그 증가분인 1,400만원에 10% 추가 소득공제를 적용해 140만원을 더 소득공제 받게 된다.

263만원에 140만원까지 더해 총 403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는 것인데, 기존 소득공제 한도 300만원에 추가공제 한도 100만원을 합쳐도 한도가 400만원이라 최종적으로는 400만원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5%포인트 높아졌다.

기존 15%, 1,000만원 초과분에는 30%였던 세액공제율이 이번에는 20%,

1,000만원 초과분에는 35%로 적용된다.

법정기부금 1,000만원, 지정기부금 200만원을 낸 사람은 원래대로라면 1,000만원의 15%인 150만원과 초과분인 200만원의 30%인 60만원까지 총 21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1,000만원의 20%인 200만원과 1,000만원 초과분 200만원의 35%인 70만원까지 총 2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2020년 귀속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1인당 평균 18만원 꼴이었다. 2019년 귀속분 18만6,000원보다 소폭 줄었다.

2021년 귀속 기부금 세액공제율은 세액공제율 상향에 따라 이보다 다소 많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신청한 회사와 근로자에 한해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공해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바로 제공해주는 서비스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개통된다. /이연수 기자



### 제조업 부담금 면제기간 확대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에 따라 제조 창업기업이 공장설립 시 부과되는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올해 8월 2일까지 창업한 기업이다.

관련 조항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해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도 적용되며, 시행 전에 납부했거나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제 기간이 7년으로 확대되는 부담금은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조지조성비,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 등 총 12개이며, 물이용부담금(4대강)은 기존대로 3년 동안 면제된다.

해당 부담금을 면제받고자 하는 제조 창업기업은 지자체에 부담금 면제신청서를 제출해 면제 여부 공문을 통보받은 후, 해당 통보서를 부담금 부과기관에 제출하면 면제 또는 환급받을 수 있다. /김혜린 기자

### 스타벅스, '일회용컵 없는 날' 캠페인

스타벅스 코리아는 10일 일회용컵 없는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스타벅스는 지난 2018년부터 매월 10일을 일회용컵 없는 날로 정해서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 사용을 권장하는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전개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서울, 부산, 제주, 광주, 대구, 광주, 강원 지역 등 매월 다양한 지역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참여 캠페인을 진행, 1만1,000명이 넘는 고객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다회용컵 사용에 동참한 고객에게 감사의 의미를 담아, 이날 하루 동안 스타벅스 전 매장에서 개인컵 할인 혹은 에코별 적립 혜택을 받은 스타벅스 리워드 회원 230명을 추첨해 톨 사이즈 무료음료 쿠폰 2매를 증정한다.

다회용컵 이용으로 친환경 일상을 실천한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한 선물도 증정한다. /황애란 기자

2021년 작년 한 해 동안 2,188만건에 이르는 다회용컵 이용 건수 중 에코별 적립 건수가 가장 많은 고객 1명에게 1년간 스타벅스에서 톨 사이즈 무료 음료를 즐길 수 있는 1년 무료음료 쿠폰을 제공한다. 에코별 적립이 많은 22명에게는 1달 무료음료 쿠폰을 제공하고, 220명에게 무료음료 쿠폰2장씩 제공할 예정이다.

스타벅스는 오는 2025년까지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 다회용컵 도입을 통한 일회용컵 사용률 0% 도전 등 탄소 감축 30%를 위한 지속가능성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제주지역 4개 매장을 시작으로 12월에는 제주 지역 전 매장으로 일회용컵 없는 매장 운영을 확대했다. 서울 지역에서는 11월 6일부터 12개 매장에서 일회용컵 없는 매장을 시범 운영 중이다. /황애란 기자



설 선물세트 판매 시작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본격적인 설 명절 선물을 판매를 시작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비대면 선물 전달 방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물량을 지난해 대비 20% 이상 늘렸다. 최상위 등급의 명품 한우와 굴비 선물세트 등 프리미엄 상품을 한정수량으로 선보인다. /롯데쇼핑 제공

### 에디슨모터스, 쌍용차 인수

에디슨모터스가 10일 쌍용자동차를 사실상 최종 인수했다.

쌍용차는 이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M&A)을 위한 본계약 체결했다고 공시했다. 인수금액은 3,048억원이다.

본계약 체결은 지난해 10월 20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쌍용차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80여일 만이다.

에디슨모터스는 지난해 9월 입찰에서 3,100억원을 써내 쌍용차 인수전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같은해 11월에는 법원에 이행보증금으로 매각대금의 5%인 155억원을 납입하고 쌍용차와 인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혜린 기자

### 기차역 입점 '대표 맛집' 공모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코레일유통은 고객이 기차역에서 지역의 유명 먹거리를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입점 업체를 내달 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대상역은 광주역을 포함한 서울역, 부산역, 대전역 등 16곳이다.

역사 내 유휴공간에 운영 장소를 제공하며 식당, 카페, 제과점 등이 가능하고 업종 제한은 없다. 대상역 소재지에 있는 업체 중 일정 연매출, 운영 기간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할 수 있다.

입점업체에는 최대 5년의 계약기간과 운영 안정화를 위한 최저 수수료율의 혜택을 제공한다.

업체 종사원이 분점 형태의 창업매장을 희망할 경우 선정 심사 때 우대해 정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황애란 기자

### 금호타이어, 중국 'CGD' 본상

디자인 어워드...솔루스 HS63·엑스타 PS71 수상

금호타이어는 "2021 중국 CGD 어워드"에 SOLUS HS63과 ECSTA PS71 제품을 출품해 본상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금호타이어의 중국시장 출시 제품인 승용차용타이어 SOLUS HS63과 SUV용 타이어 ECSTA PS71은 혁신성, 기능성, 내구성, 상징성, 제품 재료 및 내

지 소비 적정성 등의 까다로운 평가항목을 통과하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시상식은 지난 7일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수상작은 중국 사면시에 있는 레드닷 디자인 전시관에 1년간 전시된다.

CGD는 2015년부터 개최됐으며, 독일 레드닷(Red Dot)이 60년 이상의 전문 지식과 디자인 상을 운영한 리소스를 활용해 출품작을 심사한다. 국제 심사위원단은 출품작 간의 단순한 비교를 넘어



활용해 출품작을 심사한다. 국제 심사위원단은 출품작 간의 단순한 비교를 넘어

디자인이 최고 수준의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평가한다.

출품작은 중국기업 혹은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산업 생산 공정을 거친 출시 제품으로 시장성을 갖추어야 하며, 접수 시점을 기준으로 출시한지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제품이어야 한다.

중국 승용차용타이어 신차용 타이어로 공급중인 SOLUS HS63 제품은 승용차용 고성능 여름용 타이어다. 건조하고 젖은 표면에 안전적인 제어와 제동 성능을 발휘하며, 낮은 소음, 부드러운 주행감, 뛰어난 내구성을 갖추고 있다.

ECSTA PS71은 일기-폭스바겐, 장

성기차, 합중기차 등 중국 내 유명 자동차 브랜드에 납품중인 제품이다. 고속주행에 특화된 프리미엄 스포츠 타이어로, 전체적인 접지면적을 극대화해 제동성능을 향상시킨 것이 제품의 특징이다.

김철 금호타이어 중국 연구개발센터장은 "타이어의 디자인은 얼핏 보면 유사해 보이지만 패턴 디자인이 성능을 좌우하고, 사이드월에는 구체적인 제품 정보와 고성능 여름용 타이어"이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디자인 역량을 발휘해 시장에서 인정받는 제품을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고 소감을 밝혔다. /황애란 기자

## 사람과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 의료기관 세탁물 전문처리 기업!! ]

호남 최대 최첨단 세탁시설 완비,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으로 철저한 품질관리, 효율적인 관리로 의료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세탁 전문 시스템을 갖추어 친환경 세탁 문화를 위해 연구와 노력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치(연속) 세탁기

다림시설

운반카트 고온소독 살균

(주)백양산업
전라남도 장성군 황룡면 신기길 93 T. (061)392-7900